



호랑이 V11 대장정 시작됐다

■ 내일 프로야구 2010시즌 개막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IA의 2010시즌 대장정이 시작됐다.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27일부터 시작되는 두산 베어스와 개막 2연전에 대비해 25일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선수단은 출발에 앞서 오전 훈련을 소화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개막전행 티켓을 거머쥔 선수는 26명. 최후의 생존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연습생 출신의 이종환이다.

시범경기 전경기에 출전한 이종환은 변화구 대처능력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한방과 안정된 수비능력으로 조범현 감독의 낙점을 받았다. 이날 발표된 8개 구단의 26인 엔트리에 포함된 신인선수는 외야수 이종환을 비롯해 내야수 최윤석(SK), 장민익(두산)·박시영(롯데)·신정락(LG·이상 투수) 등 5명에 불과하다.

마운드에는 전태현, 김희걸 등 새얼굴이 등장했다.

이번 엔트리에선 다음주 삼성과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등록될 선발 서재응을 제외한 로페즈·양현종·윤석민·전태현이 선발진으로 자리 잡았다. 이종환·김희걸 등이 선발 후보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손영민·곽정철·윤동

잠실서 두산과 2연전 개막전 선발 ‘로페즈’ 엔트리 26명 확정

훈의 필승 계투진과 함께 박경태·정용운 두 좌완도 서울로 떠났다.

이성우는 주전 안방마님 김상훈과 함께 포수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김선빈·최용규가 내야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1년여의 재활을 끝낸 채종범도 외야수로 한 자리를 차지했다.

조범현 감독은 로드리게스의 이탈로 생긴 마운드 공백이 KIA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범현 감독은 “선발진들의 부상으로 인해 베스트 전력으로 시즌을 시작하지 못해 아쉽다”며 “4월달 상위

과의 경기가 많이 예정된 만큼 4월 한 달이 올 시즌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KIA는 지난 시즌 초반 6선발 체제를 도입, 투수진들의 안정된 활약 속에 우승 행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대진·로드리게스의 부상으로 6선발 꾸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KIA는 개막 이후 한 달 동안 두산·롯데·SK·삼성과 두 번씩 만나야 하는 강행군이 예정되어 있다.

6선발을 고심했던 조범현 감독은 “예상치 못한 투수진의 부상으로 전력이 바뀔 수도 있다”며 “5일 만에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선발들을 활용해 5선발과 6선발 체제를 번갈아 사용할 계획이다. 6일 휴식이 필요한 선수는 그 간격을 지켜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일단 조범현 감독은 서재응·전태현·김희걸을 활용한 6선발 체제로 스타트를 끊을 전망이다. 개막전에서는 특급 양봉 로페즈가 첫 수 사냥에 도전한다.

◇KIA 개막 엔트리

▲투수(11명) = 박경태·정용운·손영민·윤석민·전태현·유동훈·로페즈·김희걸·이동현·양현종·곽정철 ▲포수(2명) = 김상훈·이성우 ▲내야수(7명) = 김선빈·박기남·안치홍·최희섭·김상현·이현곤·최용규 ▲외야수(6명) = 이종범·이응규·나지완·채종범·김원섭·이종환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아 연습재개 ‘점프 OK’

세계피겨선수권 2연패 시동... 국민정도 컨디션 곳

하루를 푹 쉬며 컨디션을 조절한 ‘피겨여신’ 김연아(20·고려대)가 훈련을 재개하며 본격적으로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2연패에 시동을 걸었다.

김연아는 25일(한국시각) 새벽 이탈리아 토리노 타플리 빙상장에서 치러진 여자 싱글 공식 연습에서 ‘제임스 본드 메들리’에 맞춰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점검했다.

23일 연습에서는 가벼운 점프만을 뛰어 보며 빙질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던 김연아는 하루를 쉬고 보통 대회 때와 같은 리듬으로 나선 이날 연습에서는 집중적으로 점프를 시도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간단한 스케이팅에 이어 더블 악셀과 살코 등을 뛰어 보며 몸을 풀 김연아는 이윽고

자신의 쇼트프로그램 주제곡이 흘러나오자 우아한 손짓과 함께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부터 깔끔하게 뛰어오른 김연아는 이후 트리플 플립과 더블 악셀 등 모든 점프를 완벽하게 착지했다.

한 차례의 실수도 없이 연기를 마친 김연아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 빙판을 돌며 점프를 다듬는 데 주력했다.

주로 트리플 플립을 많이 뛰어오르면서 더블 악셀-더블 토투프-더블 루프,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 등도 간간히 시도한 김연아는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벽하게 성공했다.

김연아와 같은 조에서 연습을 진행한 박

민정(16·수리고)도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점검했다.

첫 점프에서 넘어진 박민정은 두 번째 과제인 트리플 살코도 한 바퀴밖에 돌지 않고 착지하는 등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스카이랩에 이어 더블 악셀을 정확히 성공하며 안정을 찾았다.

한편 전날 토리노에 도착한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20)도 김연아에 앞서 첫 연습에 나섰다.

아사다는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을 모두 연기하면서 빠른 경기감각 회복에 나섰다. 아사다는 역시 주특기인 트리플 악셀 점프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초반에는 더블 악셀만 계속 뛰어오르며 감각을 끌어올린 아사다는 연습 후반 들어 끊임없이 트리플 악셀 점프를 시도해 대부분 깔끔하게 구사하며 박수를 받았다. /연습뉴스

KIA ‘홈피’ 새롭게 단장

‘나도 감독’ 코너 등 팬북 발간

KIA 타이거즈가 2010시즌을 앞두고 홈페이지 새단장을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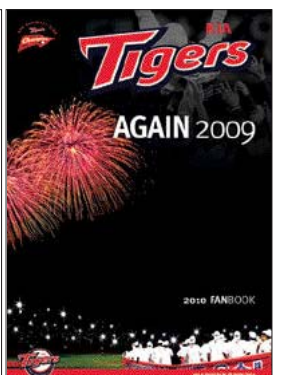
디자인을 전면 개편한 이번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는 ‘팬의 편리성과 흥미성’을 컨셉으로 메인페이지가 이원화됐다. 주중과 주말을 분리해 메인 페이지가 운영되며 주중 메인페이지는 빨간색을 강조해 밝고 심플하게 디자인했다.

토·일요일 운영되는 주말 페이지는 과격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게시판 기능이 업그레이드됐고,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경기결과 SMS 서



KIA 타이거즈 홈페이지.



2010 시즌 팬북.

비스도 실시된다.

쿼바 및 경기 정보 탭을 사용자가 설정 가능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며 선수들의 미니 홈피도 운영할 예정이다.

팬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득점, 안타, 실책, 볼넷 수를 맞히는 ‘예측배팅’과 경기 라인업을 짜는 ‘나도 감독’, 일별, 주간별, 월별 선수 MVP를 선정하는 ‘MVP’ 코너가 신설됐다.

홈페이지 오픈 기념으로 25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MP4 플레이어 10대를 경품으로 내건 ‘10개의 우승트로피를 찾아라’ 이벤트가 실시된다.

27일부터는 홈페이지 평생회원인 ‘T클럽’ 회원 100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1만 8000원으로 팬북과 모자를 가입 선물로 준다.

2010시즌 팬북도 발간됐다. 팬북은 ‘KIA TIGERS is True Winner’를 컨셉으로 한국시리즈 2연패를 향한 의지를 담았으며 총 2만부가 발간됐다. 화보형식으로 구성된 팬북에는 광주 홈경기 할인쿠폰도 삽입됐다.

팬북은 광주, 잠실구장을 비롯해 구단 홈페이지에서 5천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석 남자 쇼트 18위, 프리 진출

세계피겨선수권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기대주’ 김민석(17·수리고)이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선전하며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따냈다.

김민석은 25일(한국시각) 새벽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끝난 대회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쳐 기술점수(TES) 35.70점, 예술점수(PCS) 24.10점을 받아 합계 59.80점으로 48명 중 18위에 올랐다.

영화 ‘물방울’의 삽입곡 ‘볼레로’에 맞춰 쇼트프로그램 연기에 나선 김민석은 주니어 세계선수권에 실수했던 트리플 악셀을 깔끔하게 뛰어올라 가산점 0.8점을 얻어내며 경쟁하게 출발했다.

두 번째 과제인 트리플 플립에서 0.6점이 깎였지만, 이어진 플라이 시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고 트리플 루프-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감점 없이 처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연기를 이어갔다.

이어진 스핀과 스텝 시퀀스를 모두 감점 없이 마친 김민석은 오렌만의 ‘클린 연기’에 감격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연습뉴스

김현수, 팬들이 뽑은 가장 위협적인 선수

‘타격기계’ 김현수(22·두산)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뽑혔다.

일본 온라인 리서치 기업 마크로밀의 한국 현지 법인인 마크로밀코리아는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에 가장 걸림돌이 될 상대팀 선수 1위로 김현수가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사는 23-24일 이틀 동안 프로야구 구단 연구자인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사는 20~50대 남녀 야구팬 50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투타를 합쳐 김현수가 62표(12.3%)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한화 에이스 류현진(48표, 9.5%)과 SK 김광현(42표, 8.3%)이 뒤를



이였다.

올 시즌 예상 우승 팀으로는 KIA(135표, 26.8%)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으며 SK(96표, 19.0%)와 삼성(89표, 17.7%) 역시 우승 후보감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동성중 야구 광주대표

소년체전 지역예선 1위

광주 동성중이 제 39회 전국소년체전 야구 대표팀에 확정됐다.

동성중은 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총장종과의 전국소년체전 중등부 최종 예선전에서 4-2로 승리했다.

1차 예선 1위 동성중은 2차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총장중과의 최종 예선에서 승리하며 전국소년체전 대표팀 자격을 얻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